

## 행복한 신데렐라가 됩시다 🍷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봅시다.

첫째, 완전한 복종을 하며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왕자님을 하늘같이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진정한 사랑의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둘째, 왕자님은 항상 사냥과 여행을 즐기려 밖으로 나갑니다. 그녀는 허구헌날 방에만 있어야 합니다. 왕자님 주위에는 예쁜 여인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늦게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지친 신데렐라는 의부증에 걸려서 의심과 비방과 원망을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바가지로 밤을 새웁니다.

셋째, 신데렐라는 드디어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고 왕자님과 적당한 계약관계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것을 해줄테니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놀러가고 외식도 하지만 모든 것이 계약입니다. 겉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따뜻함과 사랑이 없는 가정입니다.

넷째, 신데렐라는 드디어 가출을 합니다. 그래도 고생했던 산이 좋습니다. 창문을 열면 새들이 지저귀고 밖에 나가면 귀여운 동물과 뛰어놀 수 있던 곳이 그림습니다. 아무래도 궁전은 살 만한 곳이 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왕자님과 결혼한 이후의 신데렐라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점을 가상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곳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황재한 신데렐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왕비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참 행복을 잊어버리고 비방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뻐는데 그 이후 교제가 없어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는 않습니까? 굶주린 사람은 비방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왕자가 더욱 미워지면 가출하게도 되지요. 가출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고멜과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가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을 욕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썩뿌리, 비방과 원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다시 한번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더 이상 방황이 없습니다. 아직도 비방과 원망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왕비답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궁궐에 사는 신데렐라

가 산 속 오두막 집 계모 밑에서 살던 것처럼 눈치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항상 때문에 앞치마만 두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왕비답게 살아야지요.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마음속에 죄의 요소가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죄의 성품이구나 옛사람 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 그리고 미움이구나 얼른 깨닫고 죄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한담과 비방입니다. 한담은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우리는 비방하지 아니하며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성경공부나 기도모임을 가진 후 휴식시간에 마음 통하는 친구와 같이 남을 판단하며 비방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자리에 없는 제삼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지는군요” 혹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일 그가 안다면 정말 속상해할 것이다” 등의 말로 지혜롭게 대처하십시오.

우리는 신데렐라입니다. 궁녀가 아닙니다. 궁녀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금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며, 하루 종일 예수님과 즐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행복한 신데렐라가 됩시다.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